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전득염 전남대 건축학부 교수

인정하기 싫지만 내가 벌써 환갑이 되었다. 나이가 들어 60갑을 맞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자연의 섭리이지만 자꾸 이를 거부하고 있다. 특히 요즘은 다들 건강하고 오래 사니 환갑이라 하여 어디에도 명함도 못 내놓는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어찌할 수 없음을 몸과 마음에서 나타나는 늙어감이다. 어느덧 눈도 침침해지고, 다리에 힘도 없고, 인지능력이 많이 떨어져 간다. 제자의 이름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자꾸 섭섭함을 느끼는 것이다.

공자님은 '논어'에서 나이 예순에 이르자 '천지만물의 이치에 통달하고, 듣는 대로 모두 이해할 수 있다'하여 이순(耳順)이라 하였는데 아무리 보통사람이라고 하여도 난도무지 그렇지 않다. 명색이 교수이고, 이제 손자까지 보았는데 오히려 화를 더 자주 내

환갑 즈음에

고, 잘 토라지고, 갈수록 어린 애로 변하고 있는 것 같다. 생물학적으로 여자에 비하여 남자가 나이 들면 원래 그렇다 한다. 그래서 조금은 위로가 되지만 몸은 쇠잔해 가고, 마음은 좀생이처럼 좁아진다. 살만큼 살았고, 누릴 만큼 누렸으니 이전 욕심을 버리고, 적당한 위치로 물러나 자족하고 은둔하듯 지내야 할 터인데 아직도 꼭 이름 석자를 어딘가에 올리려 하고, 가지고 갈 수도 없는 재산을 모으려 한다. 이런 나의 모습이 마치 떨어지려는 밧줄이라도 잡고 바둥거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여 불쾌하다.

나보다 생일이 빨라 이미 환갑을 지낸 아내는 이미 한바탕 소동을 치렀다. 돈을 좀 버는 직업인인 아들 내외는 일생 아들만을 위하여 평생을 살아온 엄마 환갑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앞드려 쫓 받는 것처럼 "내가 며칠 후면 엄마 환갑이야!" 라는 정보를 미리 주어 겨우 몇 푼 용돈을 받아내는 장면을 연출하였다.

어떤 친구는 자식들이 유럽여행을 보내주었다. 누구는 수백만 원짜리 가방을 사주었다. 구구절절 다 섭섭한 얘기만 듣고 슬퍼하는 아내의 입장이 오히려 이해가 되었다. 예전엔 거의 아들과 동지적 입장에서 공감하였던 내가 이제 아내의 편이 되었다. 아니 더 솔직히 얘기하면 나도 몇 달 후면 환갑이

되어 겪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번에 아들 편이 되지 않고, 아내와 동지가 된 것이다.

사실 난 몇 년 전부터 노후준비를 나름대로 하고 있다. 건강관리, 정년 이후 일거리 찾기, 악기연주와 합창단 활동, 환갑 이벤트를 준비, 아내가 모르는 비자금 모으기 등 비장한 각오로 준비하였다. 물론 계획보다는 반정도만 성공하고 있는 셈이다. 열심히 운동을 하여 아직 정기건강검진에서 지적받는 사항이 거의 없다. 일자리 찾기는 포기하였다. 내가 정년 이후에 돈을 버는 일을 하려 하면 제자들과 부딪치기 때문이다.

제자들의 먹을거리를 스승이 나누어 뺏어 먹는 모습이 좋을지 없다. 색소폰은 몇 달 연습하다 자연스레 그만 두게 되었다. 소리가 너무 커서 연습장소 구하기가 어려웠다. 합창단 활동은 내가 선택한 큰 행복이다. 4부 혼성합창은 화음도 아름답고, 남자가 함께하니 즐겁기도 하다.

댄스를 권하는 사람도 많다. 편견인지 모르지만 그건 좀 그렇다 하여 하지 않았다. 환갑 이벤트로 해외여행을 가려한다. 아내가 가보지 못한 곳을 선택하여 좀 럭셔리하게 해주고 싶다. 그러나 경비가 만만치 않아 자식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얘기도 꺼내지 않는다.

아내가 모르는 비자금을 모으다 정말 혼이 났다. 남편만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선배님들의 충언에 몇 년간 모은 돈을 몽땅 털리고, 또 배신감에 분해하는 아내에게 부도덕한 사람이 되기도 하였다. 이를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지금 나의 환갑 즈음의 푸념은 남들이 보면 엽장 지른다고 할 속없는 호사가 아닌가. 아직까지 몸 건강하 잘 지내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것도 65세까지 해백은(?) 직업으로 평생 공부하며 가르치는 행복이 얼마나 큰가. 여기에 나를 평생 뉘스라고 부르는 아내가 곁에 있어 더욱 행복하다. 아내가 없는 노후를 상상하면 참으로 우울하다.

얼마 전에 태어난 손자 녀름은 정말 귀엽고 사랑스럽다. 어렵게 키운 자식보다 좀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아옹다옹 키울 필요가 없는 손자를 보면 참으로 행복하다. 이제 그동안 잠시 쉬었던 성당에도 다시 나가려 한다. 갈 곳이 없는 탕아가 다시 왔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느님이 이해하시리라 믿는다.

화를 내고 토라지는 것은 자기 콤플렉스라고 한다. 근자에 나의 못한 마음과 행동은 늘어감을 또 부족함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진정 현명하다면 이 만큼에서 만족할 줄 알아야 하지 않을까?

의료칼럼

면역력 저하와 대상포진



황간택 동이병원 통증치료센터 원장

연일 30도를 웃도는 무더위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됐다. 여름은 무더위에 따른 체력저하와 피로 누적으로 면역력이 약해지고, 피부 노출이 많이 되고 예민해지는 계절이다. 또한 직장인들은 휴가를 다녀와 몸이 더욱 피곤해지기도 한다. 이렇게 면역력이 저하되면 대상포진이 발생하기 쉽다. 실제로 기온이 높고 습한 7~9월에 대상포진 진료 환자가 증가한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대상포진(Herpes zoster)은 수두·대상포

진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감염성 질환을 말한다.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는 수두를 포함한 전신감염과 대상포진으로 알려진 국소 감염을 유발한다. 전신 감염인 수두는 최초 감염에 의해 주로 소아에서 발생된다. 국소 감염인 대상포진은 주로 노인환자에서 발생하고 최초 감염 후, 척수 신경절에 잠복된 이 바이러스들의 재발 감염에 의한다.

잠복 감염과있던 바이러스의 재활성화에는 수술, 외상, 악성종양, 각종 감염, 면역력 저하, 스트레스가 유발인자로 작용한다. 연령증가에 따라 발생 빈도가 증가하지만 최근엔 노인은 물론 과로, 수면부족,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로 젊은 직장인 환자도 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피부 발진 발생 4~5일 전부터 전구증상으로 피부부절에 통증이 발생한다. 통증의 양상은 매우 다양해서 가려움, 열열함, 감각이상, 감각장애 등이 나타나고 따가운 작열통, 찌르는 듯한 천자통, 찌릿찌릿한 전격통의 형태도 보인다. 가

끔 발열, 림관염, 두통, 구역 등도 동반한다.

침범한 신경분포를 따라 띠 모양으로 피부 발진이 나타난다. 처음에는 국소적인 홍반·종창·구진이 발생하고, 홍반 위에 군집된 투명한 물집인 수포가 생기며 약 3일째 수포는 고름이 차는 농포로 변하고, 7~10일째 딱지가 지는 가피로 된다. 평균 발진기간은 약 2~3주일이다.

통증은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해 점점 심해지고 의복과 접촉 시에 강도가 증가한다. 대부분은 발진이 치유될 때를 전후하여 사라진다.

치료를 초기감염의 확산과 감염 기간, 중등도의 감소, 다른 부위의 전파 방지, 대상포진 후 신경통의 발생 방지가 목표이다. 특히 통증은 강력히 치료해야 한다. 완전한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불행히도 확실한 효과적 치료요법이 없으며, 많은 치료 방법이 서로 다른 효과를 보이고 있다.

초기에 항바이러스제 투여가 필요하며 항 대상포진 제제, 항염제제, 진통제 등의 투여

가 유용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항우울제와 신경안정제의 투여가 필요하다. 또한 수면 장애를 일으킬 정도의 급성 대상포진 통증은 국소마취제를 사용한 신경 차단으로 가능한 제거해야 한다.

대상포진 후에 발생하는 만성통증은 수년 이상까지도 지속되기도 한다. 신경통 발생은 연령의 증가, 급성기의 통증, 전구증상, 발진이 심할수록 발생 위험이 높다. 또한 여성이 약 1.6배 더 발생한다. 계속되는 통증과 우울감, 수면장애, 식욕부진, 변비, 권태감, 성욕감퇴 등을 동반한다. 통증은 따갑고 박동성이기도 하며 예리하고 찌르는 듯한 양상을 보인다.

대상포진은 특별한 예방법이 없으나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는 여름을 맞아 체력저하를 막고 면역력을 키워주는 규칙적이고 건강한 생활습관과 운동, 식사습관이 도움이 된다. 또한 무리하지 않게 휴가일정을 잡아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社說

기아차노조 봉고차 증산 차질 더는 안된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 최근 2공장 위주의 62만대 증산을 최종 합의했으나 3공장에서 생산하는 봉고트럭의 증산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 있다. 생계형 화물차인 봉고트럭은 수년째 공장이 달리고 있지만 노사협회의 지연되면서 주문 적체량이 갈수록 쌓이고 있는 것이다.

기아차에 따르면 봉고트럭은 현재 주문 대가물량만 2만대(내수 9000대·수출 1만1000대)에 달하며, 계약 뒤 차를 인도받는 데까지 평균 3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이에 따른 계약해지율만 30%에 이른다고 하니 증산이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증산에 따른 노사협회의 3년 넘게 100차례 이상 벌였으나 계속 표류 중인 상태다. 회사는 증산에 따른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복지 등 모든 분야에 적극 투자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노조 측은 "철저한 불량 검증과 투자 요구"를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학교폭력대책 실효 거둬 보완책 마련해야

정부가 학교폭력의 학생기록부 기재를 대폭 완화하고,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는 새로운 학교폭력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인성교육 강화와 체험활동 중심의 예방책은 구체적인 보완책이 뒤따라야 실효를 거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3일 정부는 학교폭력 가해 사실 기재기간을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졸업 후 심의를 거쳐 삭제할 수 있도록 대폭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학교폭력 피해 자체를 반대해왔던 광주시교육청은 인권침해와 이중차별 성격이 여전하다는 이유로 내세워 이를 거부한다는 입장인어서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학교폭력 피해와 관련,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른바 진보교육감 체제인 광주시교육청을 비롯한 전북·경기도교육청과 심한 갈등을 겪은 바 있다. 기재를 거부하는 해당 교육청에 대한 징계 추진과 반발로 교육행정예 큰 혼선을 빚었던 터에 뒤늦게야 한 발 빼는 듯한 자세를

우리는 3공장 노조의 행위에 대해 일체 관여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러나 노조는 소비자와 회사, 지역·국가경제가 처한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우선 봉고트럭 증산 차질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이 짊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봉고트럭은 '이동포장차' 등 서민경제의 발 역할을 하고 있다.

기아차의 이미지 악화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서민들이 제때에 차를 받을 도반지 못하고 계약 해지를 하면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증산에 맞춰 시설을 확충한 하청업체의 고통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증산 차질에 따른 지역과 국가적 손실도 문제다.

하지만 증산에 따른 노사협회의 3년 넘게 100차례 이상 벌였으나 계속 표류 중인 상태다. 회사는 증산에 따른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복지 등 모든 분야에 적극 투자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노조 측은 "철저한 불량 검증과 투자 요구"를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무 등 鼓

보이는 정부는 처음부터 사려깊지 못했다. 정부는 체험활동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인 '어울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적극 실천하는 '꿈키움학교'를 선정해 재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집단 따돌림이 발생할 경우에는 '교우관계 회복기간제'를 통해 개선하고,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대안교실도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이처럼 예방 위주의 학교폭력 방안을 내놓은 것은 지금까지의 처벌 위주 정책이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하에 흐름을 전환하겠다는 얘기다.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해 일단 올바른 방향이라는 판단이다.

그렇지만 새로운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따르지 않는다면 또 다른 형식의 업무와 재정부담만 늘어날 뿐이다. 정부는 새 대책이 학교현장에서 막혀 들어갈 수 있도록 세밀하고도 충분한 보편적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기고

공기업 제 역할 하려면



전승현 전남개발공사 사장

공기업의 제대로 된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여는 때보다 높다.

이번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을 통해 공공기관의 누적된 부채와 방만 경영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효율성과 책임성, 투명성 제고 등 이른바 3대 지표까지 세운 상태다.

전남개발공사 또한 전남의 대표적 공공기업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 설립 10년 차를 맞아 산적한 현안문제를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해야 하는 시험대 위에 서 있다.

그동안 우리 공사는 전남도를 비롯한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전남도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양적·질적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다. 뿐만 아니라 공사의 설립 취지에 맞게 공익적 차원에서 지역발전의 선도에 왔다. 신도시개발, 산업단지개발, 관광자원 개발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갈 길 또한 아직 멀다. 전남은 여전히 허약한 경제적 인프라 때문에 타 지자체에 비해 경쟁력에서 뒤지는 측면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금까지 공사는 전략적 투자를 통해 전남의 성장을 위한 기반조성에 주력해 왔고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다. 나아가 재무건전성 강화와 함께 지속성장을 위해 동력이 될 만한 사업의 발굴에도 과감한 도전이 필요하다 하겠다. 전남의 보고인 섬지역 등 사업성 있고 투자 가치가 있는 땅들을 지원화 하는 창의적 발상의 전환을 통해 제2의 도약을 이뤄내야 할 것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성 있는 땅들을 미리 매입해 미래사업 수요에 대비해 나가는

토지 선매입과 이를 토대로 연차적으로 계획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전략적인 사업추진은 제2의 도약을 위한 신행엔진이 될 것이다.

아울러 은퇴자 도시 등 민간기업과 경쟁하지 않고 차별화된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해 공사의 고유브랜드 가치를 높여가야 할 것이다.

밖으로는 이처럼 공익적 가치를 확대하고 전남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한편 안으로는 부실과 방만 경영의 위험요소를 차단하기 위한 내실 경영을 다져야 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 업무효율을 극대화하고 고강도 경영체질을 뒷받침할 조직정비를 통해 명실상부한 공공기업으로서의 위상을 확고부동한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특히 전남의 정통성과 고유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전남에만 시선이 고정되어서도 곤란하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문화적 토양은 세계와 어깨를 겨뤄볼 만한 자원 중에 자원으로 얼마든지 세계에서 통할 수 있

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전남개발공사는 대한민국의 서남해안시대를 여는 주역이 되어야 한다.

이제는 전남을 대표하는 공공기업으로서 16개 광역자치단체를 경쟁에서 조금 우위에 서는 방식만으로는 안 된다. F1과 여수엑스포, 순천만정원박람회 등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켰던 경험을 자산으로 갖고 있다. 이제 그들과 눈과 귀가 아닌 심장을 울릴 차례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남은 개발방식과 그 내용 또한 분명히 달라야 한다. 속도와 규모로만 점철된 개발논리를 뛰어넘지 않으면 기존에 선진적 발전을 이끌었던 사업들을 앞설 수 없다. 다음 세대로 기약할 수 없다.

전남에 산재한 천혜의 자원들을 새롭게 발견하고 디자인하는 힘을 갖춘 창의적 그룹인 전남개발공사가 개척해야 할 몫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공사는 도민의 기업으로서도 도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최고의 공공기업으로서 전 임직원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거친 바다를 향해 종이다.

사회성·소통 부족한 한국 청소년 교육 개선 시급

요즘은 소통을 많이들 이야기한다. 일방적이 되지 않고, 상의 하달식도 피하며 서로간에 존중하고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 그리고 이해하며 배려하는 게 소통의 근원이라고 본다.

아울러 기업들간에는 상생이라는 것도 일종의 화두가 된지 오래됐다. 대기업이 독식하지 않고 중소기업의 영역을 보호하고 인정하며 침범하지 않는 기업정신이 기본이다. 거기다가 하청을 주거나 납품을 받을 때 필요한 돈을 제때 제값 쳐주는 것도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할 수 있는 상생의 한 방법이다.

이런 소통과 상생은 그동안 약간 무관심해오던 것들인데 최근에 더 의미가 커진 걸 보면 과거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청소년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오로지 입시와 명문대, 성공, 입신양명 이런 것만 가르쳐 온 게 사실이다.

그런 우리 교육 방식에 문제가 드러났다. 얼마 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내용을 보니 한국 청소년은 다양한 이웃과 조

화롭게 살아가는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이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고 한다. 한마디로 나밖에 모르고 사는 수준이 세계 최고라는 이야기이니 부끄럽기 짝이 없다.

사회역량 지표는 서로간의 관계지향성, 사회적 협력, 갈등관리 이런 3개 영역에서 측정한다고 하는데 이를 조사한 선진국 36개국 중 최하위였다 는 것이다. 제일 높은 점수가 덴마크였고, 심지어 태국이나 인도네시아도 우리보다 높았다.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은 정치·사회·문화·경제적으로 상대와 조화롭게 살아가는 능력

과 배려, 이해심이 중요하다.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요즘 대기업들이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을 죽이며 마구 만물려고 하다가 충격을 받는 대형 슈퍼마켓 문제가 아닐까.

골목길에 조그만 점포 하나 내고 근근이 먹고 사는 영세 서민들의 생업을 생각한다면 대기업들이 이런 대형슈퍼를 전국 곳곳에 세우려고 하는 것은 상호작용과 상생의 측면에서 볼 때 온당치 않아 보인다.

청소년기부터 이런 걸 제대로 가르치고 배우게 하여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이웃과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좀 커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윤현숙·순천시 안동동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滄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광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 치 부 2200-612	여론매체부 2200-621	광고매체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 회 부 2200-616	사 진 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